

# 세계불교학의 과제? “교류가 발전 담보”

## 동국대 세계불교학, 제1차 학술대회 개최

세계 불교학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불교학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연구소가 창립됐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9월 12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세계불교학연구소 개소를 알리고 이를 기념한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유럽·미주에서 공부한 소장학자들이 각 지역별 불교학의 과제를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빨리어로 기술된 인도 경·율·논서의 번역본으로 인도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중국적인 불교가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며 한문불전 연구의 방법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배 박사는 “불교인식론논리학의 경우 한문 번역본이 거의 없어 범어와 티베트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의 불교학 연구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석사 이상 스님 드물어”**  
김한상 스리랑카 켈라니아대 박사는 동남아시아 불교학 연구동향과 과제에서 전통적으로 빨리 불교학을 담당해온 승려들의 학풍이 위축돼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박사는 “오늘날 대학 중심으로 재가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승려는 석사 이상으로 공부하는 이가 적은 실정”이라며 “외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그 외연이 넓어지고 내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김 박사는 “스리랑카의 경우 과거 높은 교육열과 영어사용인구, 국립대의 불교학부 등에서 유능한 불교학자들이 배출됐지만 이제는 장밋빛 미래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유럽 “문헌학 연구에 치우쳐져”  
이민성 독일 보훔대 박사과정은 이미 국내에 소개된 함부르크대의 연구를 제외한

**원문 연구 한계점 공통 지적**  
**응용분야 접목 과제로 꼽아**  
**국가 교류 통한 교학 발전 제시**

무니현, 하이델베르크, 보훔, 괴팅겐 대학의 불교학 연구를 소개했다. 이 박사는 “독일의 불교학 프로젝트는 문헌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독일 인문학 연구의 특징으로 응용불교학 분야일지

라도 1차 문헌 기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민성 박사는 “독일의 경우 오랜기간 문헌학 방법론이 발달했기에 한국불교문헌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응용 불교학 분야와 독일의 문헌학 기반이 만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주 “논쟁 통해 선불교 발전”**  
문진건 CIIS 박사는 1953년 hilosophy East and West에 게재된 스즈키를 비판하는 호적의 논문과 이에 대한 답으로서 같은 호에 실린 스즈키의 논문 사이에 전개된 논쟁을 분석해 미국 선불교 연구를 설명했다. 문 박사는 호적과 스즈키의 이분법적 대립이 해소되는 단초를 아베 마사오의 ‘이 세계에서 여래의 모습과 상관없이 범은 언제나 현존한다’는 주장에서 찾았다. 문 박사는 “논쟁을 통해 그리고 후속되는 논쟁에 대한 분석에 의해 스즈키와 호적 모두가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대안의 길이 열렸다”며 “이러한 논쟁 문화를 더욱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대행선사 가르침부터 운문사 학인 수행까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학술총서 1~2권 발간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학술총서 출판기념회

전국비구니회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명우)는 비구니 스님들의 학위논문 2권을 발간했다. 이번에는 학술총서 2권을 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학술총서는 <보살심지사상연구>와 <연꽃 피는 시간>으로, <보살심지사상연구(菩薩十地思想研究)>에는 성기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연꽃 피는 시간>에는 운성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인 <운문사 학인의 수행>과 혜교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인 <공공대행(妙空大行)의 주인공 사상과 관법>을 수록했다.

연구소는 학술총서 출간을 기념해 9월 10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연구소 측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먼저 수행체계를 담은 논문과 근현대 비구니 스님

을 연구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총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연구소는 한국 비구니승가의 전통 연구와 법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비구니 연구자들에게 학술 출판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운영으로 전국비구니회의 위상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비구니 승가의 역할 증대에 부합할 수 있는 연구와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불교의 사회적 책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는 비구니 승가의 권익 증진과 불교계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국비구니회의 정책연구소다.

노덕현 기자

## “항상 무소유와 무집착을 설한 분”

### 법산 스님, 무진장 스님 2주기 세미나서 추모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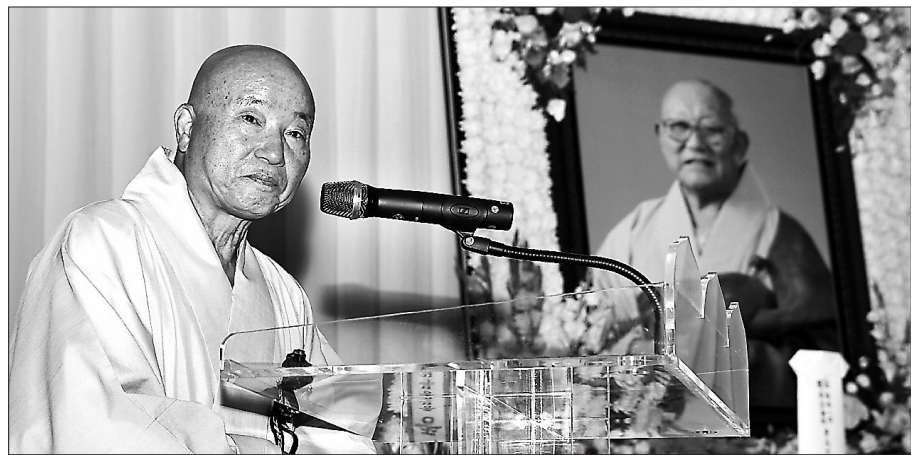
“무진장 스님이 설한 <금강경> 설법이나 특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강경> 이해가 목표가 아닌 그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대중포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무진장 스님의 입적 2주기를 추모하는 학술세미나가 11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날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사진)은 ‘금강경과 무진장 스님의 불교사상’에서 “무진장 스님은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참 비구였다”며 “우리나라 설법 제일 한국의 부르나존자라고 칭송 받았으며, 영원한 포교원장으로 살아 온 스님은 한국불교 포

교의 초석을 다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무소유와 나눔을 몸소 실천해 보였다. 법문을 해 보시를 받으면 어려운 학자나 배고픈 중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런 스님 덕분에 많은 불교를 공부하고 싶었던 학자들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었고, 배고픈 거지들에게 진정한 설법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속박에서 해탈 할 수 있는 길 이 바로 <금강경>에서 찾을 수 있었기에 무진장스님을 비롯해서 역대 많은 선사들이 <금강경>을 소의로 하여 전수하여 왔다. 스님의 삶 전체가 바로 <금강경>의 사상을 실



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산 스님은 “알음알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무소유’와 ‘무집착’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 무진장 스님께서 하신 <금강경>에 대한 법문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차석 동방문

화대학원대학 교수의 ‘무진장 스님의 생애와 원력’에 이어 김경집 위덕대 겸임교수와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1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무진장 스님의 발우와 죽비, 주장자 등 유품을 전시한다.

노덕현 기자

## 불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불교학연구회 9월 19일 가을 논문발표회 개최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충남)는 9월 19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불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가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논문발표회는 △김성욱 UCLA 박사의 ‘삼처전심(三處傳心)의 한국적 기원과 적용’ △박인성 동국대 교수의 ‘변행심소축(變行心小축)에 대한 규기의 해석’ △임승택 경북대 교수의 ‘무아·윤회 논쟁에 대한 비판

적 검토-초기불교를 중심으로’ △박석연 동국대 강사의 ‘한역 화엄경입법계품과 만주어역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비교 연구’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충남 회장은 “이번 발표 주제들이 불교의 전통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어 학계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존엄사에 대한 종교계 공식 입장 촉구

박상언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연구원, 불교평론 논단서

“생명의 한계를 연장하려는 의학의 열정은 죽음을 인간에게서 일시적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도 함께 내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종교는 물음을 제기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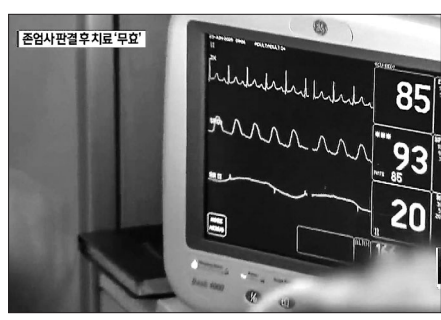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존엄

사에 대한 종교계의 공식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준비가 종교계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언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은 <불교평론> 63호에서 ‘존엄사 혹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와 종교의 위상

에서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 관점에서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몇몇 학자나 단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종단이나 교단의 합의구를 통해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생명 의의적인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결정권 보다는 생명권의 중요성을 종교가 강조하고 있다. 또 의료현장과 환자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대리자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될 수 있다”며 “사전 의사를 설정하고, 연명치료 중단의 공식성



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교고전어·문헌연구...’ 성과 콜로키움

금강대 불문연, 10월 28일까지 6회 진행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소장 박창환)는 HK사업인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의 연구’의 성과를 점검하는 콜로키움을 9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금강대 본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9월 16일에는 △김성철 금강대 HK교수의 ‘〈심집경〉 삼계유심계에 대한 유식

과 중론의 해석’, △김지연 HK연구교수의 ‘〈대승기신론〉의 지정상(智淨相)에 대한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의 해석 고찰’이 발표된다.

콜로키움에 발표를 원하는 이는 담당자(tatpum@gmail.com)으로 주제와 간단한 요약문을 보내면 된다. 발표자에게 소정의 발표료를 지급한다.

노덕현 기자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빙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빙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팔자(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책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